

김태호, 『근현대 한국 쌀의 사회사』 (들녘, 2017), 350쪽

오승현†

짧지 않은 한국 과학기술사 연구의 역사를 훑아보면 그 서술의 흐름은 대략 두 가닥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인상적인 과학기술적 성취 혹은 관련 사상을 중심으로 한 서술인데, 여기에는 과학기술적 인공물, 개념 혹은 그에 결정적 기여를 한 인물 등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또 다른 하나의 흐름은 제도적 영역에서 포착될 수 있는 과학기술의 역사로, 전통시대에는 천문학과 같은 분야 및 그 연구 기관, 근현대는 구한말부터 (서양의) 과학을 진흥할 목적으로 수립된 기관들이 주요 연구 대상이 된다.

한국의 과학과 문명 시리즈의 열 번째로 출판된 이 책은 이러한 흐름에서 살짝 벗어나 쌀을 주인공으로 삼아 한국 근현대의 과학기술사를 서술했다는 점에서, 독창적이면서 야심찬 기획으로 평가받을 만한 저작이다. 게다가 저자도 서문에서 언급했듯이, “한국 현대 과학기술사에서 이만큼 중요한 주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음에도 “과학사학계뿐 아니라 국사학계 전체에서도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할 때 더욱 그런 평가를 받을 만하다. 한국 현대사가 보여준 전대미문의 산업화 역량과 속도에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이 시기 농업은 낡은 질서를 대변하는 영역이겠지만, 한반도가 오랜 역사 내내 농업 사회였고, 농업의 관성이 해방 후에도 한국인들의 삶과 문화에 영향력을 드리워 왔다는 점, 그리고 그 바탕에서 급격한 산업화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한국 현대사의 주제로 농업, 그중에서 주식인 쌀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진실을 들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

† 서울대학교, persival@gmail.com

누구라도 책을 펼쳐 찬찬히 읽어보면 사료에 충실하면서 각기 다른 행위자들의 목소리를 고루 담아내려는 저자의 노력에서 한국 현대사의 어떤 진실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평자의 욕심 때문인지 아쉬운 점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책의 내용이 제목에 포함된 “사회사”라는 개념과 어울리는지 의문이다. 저자가 서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책의 뼈대는 그의 박사학위논문 “통일벼와 1970년대 쌀 증산 체제의 형성” (서울대학교, 2009)으로,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기 정부 주도의 농정 속에서 새로운 품종인 통일벼가 널리 보급되다가 70년대 후반 농업 현장에서 사라져가는 이야기가 중심을 이룬다. 이 과정에는 최고 권력자의 의지, 농촌진흥청과 같은 관료 조직의 적극적 농정과 교육, 이에 더하여 “자신의 영달을 돌보지 않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적으로 연구를 수행한 허문회 등의 육종학자들, 그리고 동원과 참여 사이에서 증산을 위해 노력한 농민들의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통일벼 생산의 기술 시스템 혹은 기술 네트워크가 한때 성공적으로 조직되었다가 도열병 등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기고 그에 따라 국가에 협조적인 농민들이 이탈하면서 기술 시스템이 궁극적으로 해체되는 역사는 기술사의 흥미로운 사례이자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국면이기는 하지만, 서술의 핵심은 기술 시스템의 흥망성쇠에 있지 사회사의 주요 대상인 보통 사람들(이 사례연구에서는 농민)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이 책의 중심축을 이루는 3, 4장은 주로 “기적의 쌀”을 개발하려는 육종학자들의 시도와 그것을 보급하려는 정부의 정책, 관료 사회의 실행에 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그렇다면 조금 밋밋하더라도 원래 박사 학위 논문의 제목이 더 어울려 보인다.

물론 농민들의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분화하는지에 대한 서술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일부 농민층이 정부의 정책과 공조함으로써 마을의 새로운 지배층으로 떠오르는 과정(144-150), 1970년대 말 정부의 농정 기조가 주곡 증산에서 시장 개방으로 바뀌어 농민들이 토사구팽당하는 상황에서 이농의 증가(187), 1970년대 말 농민들의 현실적 처지를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 “강제 농정”에 대한 농민의 저항(214-217)이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선행 연구에 의존하는 한계가 보이기도 하고, 농민 사회의 지역적 차이를 간과하거나 농민들의 대응(강제 농정에 대한 저항 운동)이 정말로 일반적인 흐름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1970년대 국가가 신품종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농촌 동원 프로그램

의 일환이었던 증산왕의 사례를 서술하는 부분에서 저자는 농민들이 “상품 경제의 틀에서 농업을 생각하고 적극적인 이윤 추구 행위”(148)를 규범으로 받아들이면서 정부와 계약 재배 단지를 운영하게 되었고, 그런 계약 재배 단지의 성공 사례로 전라남도 영암군을 언급하고 있다(149). 그런데 일반적으로 계약 재배 단지의 운영은 자본주의적 규범이나 상품 경제의 틀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국가 주도 계획 경제와 더 가까운 것으로 여겨진다. 게다가 책의 다른 부분에서는 1970년대 전라도는 인접한 대도시 소비 시장이 부재하므로 정부의 추곡 수매 정책에 비교적 협조적일 수밖에 없었던 데 반해, 경기도는 그런 조건이 갖춰졌으므로 시장 경제의 논리가 잘 작동하여 일반 미 재배가 성행하는 모습을 대조적으로 서술한다(250-251). 이런 불일치는 독자들로 하여금 농민 사회의 지역적 차이에 대한 이해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 또한, 저자는 1970년대 말 도열병으로 인한 노풍 파동을 거치며 통일벼의 시대가 막을 내릴 때, 농민들의 저항이 일반적이었다고 서술하면서 그 근거를 한국가톨릭농민회의 자료 및 활동 기록, 당시 이 단체의 주요 활동가였던 강기갑의 인터뷰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데(214-217), 이 근거만으로는 1970년대 중반까지 국가의 증산 체제에 협조적이었던 농민들이 도열병 피해가 증가하면서 불만을 품고 마음을 바꾼 것인지, 원래 비협조적인 농민들이 노풍 파동을 계기로 세를 규합해 활동에 나선 것인지 불분명하다. 저자도 한 국가톨릭농민회의 자료가 편향되어 있다는 점을 다른 부분에서 인정하고 있다(144-145). 사소한 문제일 수 있으나 당시 가톨릭농민회의 입장을 인터뷰로 구술한 강기갑 전 국회의원은 경남 사천이 지역구로, 그곳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 농부다. 그렇다면 박정희 정권의 농정에 대해 호남의 농민들과는 다소 결이 다른 문제 의식을 갖고 있었을 수 있다.

평자의 문제 제기는 저자가 박사학위 논문에서부터 핵심으로 다루고 있는 1970년대 주곡 증산 체제의 확립을 위한 관료 조직의 행정 및 동원 조치, 그에 헌신적으로 역량을 모은 허문회 등 육종학자들의 고군분투와 같은 기술 시스템의 중심점에 해당하는 지점이 아닌 주변적인 부분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평자가 보기에 이 책은 저자가 박사학위 논문에 단지 “사회사”라는 제목을 붙여 출판한 것이 아니라, 한국 근현대 역사에서 농업, 특히 쌀이 사람들의 생활과 사회의 정체성을 구성해 나갔던 보다 섬세한 모습을 보여주려는 진정성 있는 시도가 담겨 있다. 학위 논문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제6장 양, 질 그리고 꿈: 식량을 둘

러싼 다양한 기대들과 식생활의 변화”가 추가되었다는 사실은 바로 그런 시도를 보여주는 징표라고 생각된다.

이 점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앞서 제기한 문제는 주변적이라기보다는 저자의 야심찬 시도가 충분히 무르익은 결과물로 나타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일 뿐 아니라 향후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농업을 통해 볼 수 있는 다채로운 사회상에 대한 기대로 이어진다. 이 책은 평자에게 어떤 가설적 전망을 떠오르게 했다. 한국의 현대사에서 증산 체제의 부침과 함께 농민들이 갖게 된 어떤 정체성, 그들이 국가로부터 배려받지 못하게 되면서 커지게 되는 상실감, 그로 인한 농촌 사회의 와해와 문화적 지체 현상의 가속 등의 요소가 1970년대 이후 한국의 정치사회적 격변과 긴밀히 닿아 있다는 생각이 그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박정희 정권의 증산 체제 실패는 한국이 더는 농업을 국가의 주요 생산 수단으로 삼지 않고, 본격적인 공업 국가로, 도시 중심의 산업화 사회로 탈바꿈하는 분수령이었다. 이 흐름에서 농민들의 이농이 가속화되고 도시의 노동자로 탈바꿈한 그들이 한국 경제 성장의 주역이 되면서 어떤 문화적 자원, 사회적 정체성 등이 개입되고 만들어졌을까? 자본주의적 화폐 경제 체제는 지역과 시대에 따라 어떤 의미로 전유되었으며, 노동자, 농민의 계급 분화와는 어떤 접점이 있을까? 그 과정에서 국가가 식별하는 국민은 어떻게 달라져 왔을까? 나아가 이러한 변화가 어떤 측면에서 한국의 독특한 고속 성장, 민주화 운동과 같은 현대사의 굵직한 흔적과 연결될까? 누군가가 한국 현대사의 이러한 문제 의식을 품고 사회사의 선구자인 E. P. 톰슨(Edward Palmer Thompson)의 저작처럼 『한국 농민계급의 쇠퇴와 노동계급의 형성』과 같은 책을 쓴다면, 반드시 농촌 사회의 변화를 심도 있게 살펴야 할 것이다.

이 책에 대한 평자의 의견은 한국 현대사의 인상적인 기술 시스템 사례 연구보다는 한국 근현대사의 숨은 이야기들을 들려줄 농촌 사회의 세심한 모습에 더 집중했다. 평자는 저자의 시도에 대해 공감의 마음이 컸기에 아쉬운 점이 더 크게 보였는지도 모른다. 농업과 농촌 사회를 통해 한국의 근현대사를 조망하는 작업은 전통 시대와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거대 기획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 그래야 한국 근현대사의 온전한 그림 한 조각이 그려질 것이라 믿는다. 이 서평은 언젠가 그 기획에 참여하고 싶은 평자가 스스로를 미리 다잡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 책을 통해 그 길에 첫발을 내디뎠던 평자를 비롯한 후학들이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길을 내준 저자에게 존경과 감사를 전한다.